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귀 속의 귀로 들어야만 머리통에 번갯불이 일어나는, 눈이 멀어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은산철벽의 활구리는 것을 깨닫는다.”

선종 7조 남악탑

미니버스는 회양선사가 마조를 깨우치기 위해 기왓장으로 거울을 만들겠다고 갈았던 마경대(磨鏡臺) 광장에서 멈춘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구름이 먼저 순례자들을 맞이한다. 미세한 물방울들이 긴 띠를 이루어 하늘의 옷자락처럼 내려올거린다.

순례자 일행은 수불스님, 각정스님, 범일스님을 따라 비구름 속으로 스며든다. 남악 회양선사 묘탑은 뜻밖에 마경대광장 입구인 척발봉 산자락에 있다. 묘탑의 정식 명칭은 '선종 7조 회양 대혜선사탑(禪宗七祖懷讓大慧禪師塔)'이고, 줄여서 부를 때는 '남악탑'이라고 한다. 그러나 묘탑 정면 기단에는 당나라 재상이자 황벽선사의 법제자였던 배휴(裴休)거사의 글씨로 '최승륜탑(最勝輪塔)'이라고 음각해 놓았다. 최승륜이란 '가장 수승한 진리의 탑'이란 뜻이라. 회양선사의 법향(法香)이 묘탑 주위에 가득하여 순례자들을 감동시키는 느낌이다.

수불스님과 신도회장 무량심 보살님이 감개무량한 표정을 짓는다. 20여 년 전에 한 번은 적이 있는데, 탑이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며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묘탑은 이곳 형산에서 회양선사가 입적했다는 증거도 된다. 그러나 2층 묘탑 안에 남악 회양선사의 일생이 집묵의 언어로 담겨 있는 셈이다. 순례자는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객과 다르다. 회양선사가 남침 집묵의 소리를 듣는다.

<전등록> 제 3권을 남악 회양선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조의 법을 이었고 남악에서 살았다. 속성은 두(杜)씨이며 금주(金州; 섬서성 안강) 사람이었다. 처음 태어날 때, 여섯 가닥의 서기가 하늘로 뻗더니 의봉 2년(677) 4월 초과일에 태어났다.'

부처님과 탄생일이 같음은 불연이 깊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선종 7조 조사가 됐으니 부처님의 후예다.

'15세까지 오직 불경만을 좋아하였는데 때마침 지나던 삼장법사 현정(玄靜)이 소년 양(讓)의 부모에게 일렀다.

'이 아이는 출가하여 최승륜의 법을 얻어 지극히 미묘한 경지에 이를 것이며, 불법의 이치를 터득할 것이오.'

양은 15세에 부모의 허락을 받고 형주(荊州; 호북



남악탑을 참배하는 스님들 사이로 보이는 배휴 거사의 친필 '최승륜'

성 당양) 옥천사로 가서 홍경(弘經) 율사를 은사로 삼아 출가했다. 은사 시봉하기를 8년이 지나니 회양(懷讓)이란 범명을 주었다.'

그러나 은사 밑에서 계율을 공부하던 회양은 스스로 탄식하게 된다.

"계를 받고 다섯 해가 지나는 동안 위의(威儀)를 널리 배워 겉모양은 절절하게 되었으나 진리는 배우려 해도 깨달을 길이 없구나. 출가한 이는 무위(無爲)의 법을 얻어야 하늘과 인간세상에서 이길 이가 없으리라."

옆에서 듣고 있던 탄연(然然)도 회양의 탄식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여러 선지식을 찾아뵙고자 만행을 떠났다. 이윽고 송산 안(安) 화상에게 갔다. 탄연이 먼저 안 화상에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 자리에서 '자기 뜻은 묻지 않고 왜 조사가 온 뜻만 묻는가.'라는 꾸밈음에 바로 깨달은 뒤 안 화

상을 섬기었다. 그러나 회양은 송산에 머물지 않고 남쪽 천리 밖의 조계(曹溪; 광동성 소관)로 내려가 육조 혜능선사에게 의지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송산에서 화상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령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 않습니다."

회양은 육조 혜능선사 곁에서 시봉하기를 12년이 지난 뒤에야 하직하려 했다. 그때 육조가 물었다.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그것을 닦아 증득할 수 있는가."

"닦아 증득하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성정이 온화하여 시비하기를 싫어하는 회양이 스승에게 '더럽힐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은 일찍이 얻

고자 했던 조적이 없는 '무위의 법'을 체득했음을 뜻하지 않을까. 이 무위의 법은 훗날 제자 마조가 '평상심이 도다(平常心是道)로 일상의 삶과 좀 더 친밀하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그 더럽힐 수 없는 것이 부처님들께서 염려하여 보호하시는 바이니, 그대로 그렇고 나도 그러하리라."

회양이 조계를 떠난 것은 당 현종 선천 2년(713)의 일이었다. 조계를 떠난 회양은 남악 형산 반야사(현 북옥사)로와 31년 동안 주지와 방장스님으로서 주석하면서 자상한 방편과 겸양의 덕으로 마조 도일(馬祖道一)이라는 불세출의 제자를 길러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회양선사의 여러 제자 중에는 신라 승 본여(本如)와 현성(玄成)도 있었다. 신라에서 건너온 그들도 마조와 함께 수행한 동문이었다. 아

쉬운 대목은 그들의 구도 행적이 더 이상 밝혀지고 있지 않은 점이다. 남악에서 입적했다는 기록도 없고 신라 땅에서 교화를 펼쳤다는 기록도 전무하다. 가을바람에 뒹굴다 사라져버린 가랑잎처럼 철저히 종적을 감추고 산, 후학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바라지 않던 무생(無生)의 선승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순례 일행 맨 끝에서 탑돌이하고 계단을 내려서는데, 홀연히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 육조 혜능선사의 목소리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인가.'

본래 면목을 묻는 사자후다. '귀 속의 귀'로 들어야만 머리통에 번갯불이 일어나는, 눈이 멀어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은산철벽의 활구(活句)라는 것을 깨닫는다. 안 화상 곁을 떠난 회양이 오랫동안 육조를 시봉한 까닭이 바로 그 물음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회양의 발걸음을 붙잡아놓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한 육조 혜능선사의 위력이 새삼 실감난다. 조사선(祖師禪)이란 선지식과 동고동락하는 동안 시절인연이 찾아와 꽃 한 송이 피어나듯 영혼을 활짝 개화시키는 경이가 아닐까 싶다.

나는 끝내 천년 전 이곳을 거닐었던 신라승 본여선사와 현성선사를 향해 합장을 한 번 더 하고 나서야 남악탑 계단을 내려밟는다. 비구름은 여전히 형산의 모든 유무정물들을 축축하게 감싸고 있다. 문득 신라에서 온 두 분 선사의 영혼이 따뜻하게 감지된다.

정찬주

소설가. 전남 보성에서 53년에 태어남. 범명은 무연. 동국대 국문과 졸업. 장편소설로 <산은 산 물은 물>, <인연>, <가야산 정진불>, <소설 무소유> 등이 있고, 산문집으로 <암자로 가는 길>, <돈황 가는 길>, <정찬주의 차기행>, <자기를 속이지 말라> 등이 있다. 행원문학상과 동국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남도산중 이불재(耳佛齋)에 머물고 있다.

1면에서 계속

'미래의 종교는 우주적인 종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하느님을 초월하고, 교리나 신학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를 모두 포함하면서, 자연과 정신 모두의 경험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감각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 불교가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는 대안이다. 만일 현대과학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가 될 것이다.'

지구별은 물론이고 광대무변한 삼천대천세계를 말하는 불교야말로 당연히 우주적인 종교인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인간의 사고가 만든 신과 교리와 신학을 초월하는, 즉 말씀의 피동적인 세계가 아닌 깨달음의 능동적인 세계를 모색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지 않은가. 자연과 정신의 세계를 연기(緣起)로 이해하면서 질량불변의 법칙 같은 인과(因果)를 얘기하는 종교 역시 불교밖에 없지 않은가.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불법의 뛰어난 가치를 고도의 엄정한 사유를 통해 발견해냈던 것이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은 불교와 과학의 관계부터 준비해온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했다.

"에스포 현장에서 보듯 과학은 굉장한 발전을 해왔고, 우리는 그 힘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처지에 놓였고, 변화를 느끼고 있는 거지요. 종교도 철학이든 과학이든 학문이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것인데 욕심들이 팍 차 전쟁이 나고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고 그래요. 그러나 불교는 미래에도 행복한 가치

도 말입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행복한 삶의 대안과 가치를 가장 빨리 사무치게 체험하는 방편이 선(禪)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 현실과 맹점을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나아가 또 다른 사람에게 깨달음을 문을 열게 해준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간화선 체험은 일상에서 이루는 행복

관을 찾아주고 인류를 안정시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줄 겁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희망과 불행을 함께 주고 있지만 일찍이 불법은 인류의 희망과 자유와 행복의 근기를 제시했으니까요. 부처님이 대안을 발견한 거지요. 홀로 빼어난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알린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인이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어요. 천만 년 지나도 눈뜨게 해줄 방법을 드러냈는데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자유를 맛보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거지요. 자기만 눈뜨는 게 아니라 더불어 눈뜨게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좁은 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소승적 공부지요. 이제는 우리 수행자들도 자기가 눈 뜬 수행방법을 남한테도 정확하게 제시하여 눈뜨게 해야 합니다."

스님은 깨달은 수행자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비극이라고 말했

다. 삶의 질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속도의 과학시대에 간화선을 지향하는 한국불교가 '눈뜨는 방법론'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혹은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자기도피이거나 허망한 은둔에 빠질 거라고 걱정했다. 우리가 선방 수행자들에게 흔히 들었던 '평생 화두를 든다'는 비장한 얘기는 사뭇 달랐다. 안국선원의 간화선 체험은 누구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일상의 행복 일 뿐이었다.

안국선원 순례자들이 당송시대 선사들이 정진했던 선종사찰을 지금 찾아가는 그 이유는 '한국 불교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온몸으로 느끼고자 함인 것 같았다. 당송시대에는 출가자나 재



상하이엑스포 전시장 내 벤치에서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과 소설가 정찬주.

가자 구분 없이 깨달음의 경계에서 선지식과 인연 지어가는 '눈뜨는 방법론'의 제시와 실천이 가장 활발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선, 간화선, 목조선이 폄하했던 그 시기를 선의 황금시대라고 부를 터였다.

梵鐘名家 聖鐘社

범종을 진정한 예술로 승화시킨 21세기 최고의 걸작품 탄생

세계 최고의 성종사 주조기술에 개재(改裝)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홍원스님의 기술이 더해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명품 범종이 탄생되었습니다.

본 제품은 개재 및 개금을 통해 범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개재와 같은 표면처리로 인해 종소리가 둔탁해지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신제품으로, 한국 범종의 수준을 한치면 업그레이드 시킨 금세기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www.sungjonga.co.kr 이 사람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신은 만민이
은혜 베풀어 주신 천하 소리가 되옵는 저지
모든 것이 부끄러워야만
고귀한 위안 일치과 고귀한
한국의 명칭
당신의 마음을 깨우겠습니다!

이름다운 개재 범종
금고 (금바+은바)
범종 (은바+금바)
희민사종 (금바+은바)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02-733-6141 ● 공장: 충북 진천군 덕시면 활곡리 406-2B Tel:043-536-2581